

세미나

지상중계

제40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대학생 취업, 진단과 대안'

송 선 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9월 19일 (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대학생 취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2011학년도 한 해 '반값등록금'이 이슈화 되고, 국립대학 기성회비 관련 소송 등이 이어 지면서 대학등록금 수준이 적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대학들은 등록금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감소액은 소폭에 그쳐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등록금 경감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대폭 축소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학등록금이 제공되는 교육에 비해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해 기존의 등록금액 축소와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면, 등록금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혜자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의 비용지불은 교육을 향유함으로써 개인의 안정적 미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종의 '투자'가 된다.

대학의 질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학의 질이 높을수록, 특히 학생 1인당 지출비가 많을수록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임금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Dale and Krueger, 1998; Daniel, Black and Smith, 1995; Wachtel, 1976).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질이 졸업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 국내연구에서는 미국의 연구들은 대학의 질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나 한국의 경우는 학생 1인당 지출비만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실있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

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장수명, 2002). 이것은 기업이 대학의 인적자본 형성 기능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불신하여 대학의 구체적 교육차이를 판별하지 못하고 단지 일반적 명성에 의존하여 피고용인을 선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대학교육의 질이 졸업생의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 대한 관심은 교육의 ‘질’보다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생의 취업문제를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연계함으로써, 대학이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생들의 취업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대학생 취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하여 제40회 대학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특별히 이번 정책포럼은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대학은 물론 기업과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인식을 환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하였다.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대학교육을 지향, 기업과 정부의 근본적 해결의지 필요

개회사에서 김상용 대교협 부회장(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은 “2011년 한 해 반값등록

금이 이슈화되면서 그간 간과되었던 대학교육의 성과가 집중 조명되고 대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적시에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하여 발전·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국가적 사안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투자한 만큼 대학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대학과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 취업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 을, 국회 정보위원장)은 “대학생 취업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이 절박함”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일꾼과 일자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인 동시에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서 의원은 “대학생들이 이른바 ‘스펙쌓기’에 전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취업·실업 문제는 교육, 노동시장, 경제·산업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노사, 학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대학생 취업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의욕적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학생들이 취업난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제는 기업과 정부, 국회가 대학생의 취업,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덧붙여 진영 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은 “비싼 학비를 부담하면서 대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막대한 현실에서 취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 대학들이 취업관련 제도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대 미스매치 해결을 통한 대학생의 취업문제 해결

‘학생 취업, 진단과 대안’의 주제에서 단독 발표자로 나선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립대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는 “일자리의 균등한 보장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지적하고, “대학은 일자리의 통로로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증진시킬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학의 취업문제는 대학인력 수급전략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이른바 ‘3대 미스매치(mismatch)’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1) 고학력자의 급증과 일자리의 공급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는 ‘고학력 미스매치’, 2) 대졸자가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취업고용 미스매치’, 3) 대학측이 생각하는 직업능력과

기업측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의 차이가 심한 ‘직업능력 미스매치’의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총 7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기업계 분야의 입장에서 원유현 부장(삼성증권 인재개발팀)은 “대학의 차별성 없는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잘못된 인재선발에 대한 정보, 말하기와 글쓰기 등 기본 능력의 미흡 등이 큰 문제”임을 지적하고 “‘Back to basic’을 추구하여 기초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업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분석·제언하였다.

국민대학교 교육학과의 이기종 교수는 고등교육의 성과가 올바른 취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가정에서,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때의 측정이 “지금은 단순한 취업률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의 효과는 취업률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나친 취업률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평 영남대학교 학생역량개발처장은 대학생의 취업 미스매치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특히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하여 학생 측면과 중소기업 측면에서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였다. 황 처장은 “‘지역 인재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진로·취

업 전문가 확충,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및 협력 강화, 일자리 정책 정보의 대학 제공 확대'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역대학의 입장에 덧붙여 국립 군산대학교의 차왕석 기획처장은 "2012년 지역대학의 취업률이 전년도에 비해 2.0%p 상승하였으나, 지역대학의 취업률은 대학 전체 취업률 및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이유로 지역 대학생의 취업목표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차왕석 처장은 "지역대학 졸업생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대학들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정부가 정책개선을 통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토론에서 김원태 교수(대전보건대학 교수,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는 전문대학의 산학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들의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문대학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인재배출에 전문대학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첨언하였다.

이어 조진형 대표(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대학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학생 취업난 타개는 대학 교육과정 개편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대학의 교육방법과 평가방식의 혁신, 전방위적 산학협력 추진, 창업보육기능 강화' 등을 통해 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대학생 신지혜 씨(숙명여자대학교 물리학과 학생회장)는 취업 문제의 내용을 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대학생의 입장에서 "현실적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학력위주의 선발을 기업에서 원하는 업무능력 중심의 선발로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학생 스스로도 직업능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대학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부·대학·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인식제고와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

이날 포럼에서는 대학생의 취업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대학생 취업문제는 미스매치에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부·대학·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인식제고와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대교협 관계자는 "회원대학들은 대학생

취업 문제에서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대학 교육이 수단적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학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으나, 개선효과가 즉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렵다”고 말하고, “고등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학 취업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학들은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대학교육의 성과가 적절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교협이 대학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송선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 전문연구원, 일본국립고등교육정책연구소 고등교육연구부 객

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정책, 대학조직, 동아시아의 교육정책 등이다.